

Venture Korea 2008

녹색성장을 이끄는 힘, **벤처!**

- ◎ 행사명 : “Venture Korea 2008” (2008년도 벤처코리아)
- ◎ 기 간 : 2008. 10. 22(수) ~ 10. 23(목)
- ◎ 장 소 : 서울 삼성동 COEX 오디토리움 외
- ◎ 행사 공식 홈페이지 : www.venturekorea.org
- ◎ 주 최 : 벤처산업협회

(사)벤처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유수의 국내외 벤처관련 전문인들이 참석하는 국내 벤처업계 최대 행사인 “벤처코리아 2008”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녹색성장을 이끄는 힘, 벤처!”를 주제로 벤처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벤처산업협회와 IT기업연합회의 통합을 계기로 벤처업계가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역량의 결집과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벤처산업협회 서승모 회장은 “오는 2017년까지 연장기로 한 ‘벤처특별법 10년 연장’의 원년을 맞아 제2 벤처산업계의 부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벤처기업이 차세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성장동력화를 견인하여 녹색국가건설에 앞장서기 위한 다짐의 자리로서 올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준비사항을 밝혔다.

올해 “벤처코리아 2008” 행사에는 우수 벤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인 <벤처기업대상시상식>과 함께 <벤처에 의한 녹색성장시대 선포식>,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한인 기업인 초청 벤처기업 제품설명회> 및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관련 프로그램 및 국내외 투자펀드 초청 IR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 공동 주관 (총 27개)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벤처리더스클럽, 인천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한국창업대학생연합회,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환경벤처협회, 여성기업인협회 등
-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 머니투데이

◎ 후원 (총 7개)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방송공사(KBS)

◎ 주요 프로그램

-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 벤처에 의한 녹색성장시대 선포식
- 해외 한인기업인 초청 벤처기업 제품설명회
-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정기총회
- 국내외 투자펀드 초청 IR 설명회

◎ 참가규모

- 참가 예상 인원 : 약 1,000명 (시상식 및 각 프로그램)
-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벤처 유관기관 및 단체, 벤처 지원기관 등

〈Venture Korea 2008 세부 프로그램〉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및 선포식

- 벤처에 의한 녹색성장시대 선포식 :
벤처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갈 주역으로서 차세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성장동력화를 견인함으로써 녹색 국가 건설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벤처인의 의지 선포
-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 산업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지경부장관 표창, 중기청장 표창 등 77개 부문

해외 한인기업인 초청 벤처기업 제품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23일 11:00 ~ 13:00 / 코엑스 컨퍼런스 룸 203호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중소벤처기업들이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해외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현지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과 효과적인 진출전략 모색

INKE(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총회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23일 09:30 ~ 10:30 / 코엑스 컨퍼런스 룸 201호
- 참석대상 : INKE 해외 24개국 35개 지부회원 및 국내외 임원 100여명
- 주요안건 :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익년도 사업계획 승인, 「2009 INKE Spring」 개최지 선정